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 도 자 료

2008. 11. 26일(수)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08. 11. 25(수)	담당자	오영수 정책연구실 실장	
홍보담당	김진익 선임(368-4413)	연락처	368-4451	총 2 매

제 목 : 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의 장기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험제도 선진화를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2008년 11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에 알리안츠생명보험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해 최근 보험산업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수 정책연구실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신설, 판매자책임 강화,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 강화, 신용카드업무 겸영 허용, 예·적금 상품의 판매 허용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였다.

먼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신설과 관련해서는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제도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일반적인 사례와 차이가 있고 기존 모집제도와 기능 및 역할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협상권과 소액보험금 지급권을 제외하고 보험중개사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판매자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법인대리점과 금융기관대리점 등 배상능력이 있는 대형모집조직에 모집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묻지 않고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일차적으로 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요구하는 것처럼 이들 배상자력이 있는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모집과정상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는 해당 보험대리점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을 임원의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규제한다 하더라도 보험사업의 운영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 하여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경우 소유권도 박탈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업의 운영과 직접 관

련이 없는 사안으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는 대주주 자격 박탈 요건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겸업화 시대에 부응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원스톱으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업무를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예·적금판매 업무를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날 성균관대 정호열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토론에는 서울산업대 류근옥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이성환 대표, 세종대 이순재 교수, 한양대 전우현 교수,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